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Educational Support for 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with Reference to Basic Academic Competency

구영산,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Youngsan Goo(darkgreenhill@nate.com), Sangchul Oh(scoh@kice.re.kr),
Hwajin Yi(hwajin@kice.re.kr), Kyungsuk Chang(kschang65@hanmail.net)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교육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전국의 200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09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변인과 일반 학습부진 변인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설문 대상에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습부진학생과 중상위권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시킨 후 변인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의 많은 부분에서 다문화가정 중상위권 학생이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생과 일반 학습부진학생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그러나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의 일부 측면에서는 학습부진과 상관없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더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부분에서 취약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과 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 | 기초학력 | 학습 환경 | 학습 지원 교육 콘텐츠 |

Abstract

The study aims to gain information for developing educational contents to support LPSMB(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through the survey on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ttitudes related to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We analyzed a survey of 2,091 students from 200 schools who were low-performing Korean students, LPSMBs, and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on most questionnaires than low-performing Korean students and LPSMBs. However,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and LPSM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lower scores on identity and social relationships. LPSMBs showed lower scores on parents' culture than normally 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We suggested how to support LPSMBs' learning and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 keyword : |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 Low-Performi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 Basic Academic Competency | Learning Environment | Educational Support Contents |

* 이 연구는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구영산,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접수일자 : 2014년 09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20일

수정일자 : 2014년 10월 20일

교신저자 : 구영산, e-mail : darkgreenhill@nate.com

I. 연구 문제

국가를 가로지르며 이루어지는 인구 이동은 전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자국민 대비 외국인 수의 비율 또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와 동시에 한국 내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학령기 자녀들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다.

특히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은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는 한편,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해 6천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1],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과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을 제시하였다[2]. 국가 교육 정책으로의 다문화교육 추진 초기에는 교육복지 차원의 수혜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통합 및 육성의 관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정 학생들과는 일정 부분 다른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학교 적응 및 교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3]. 그리고 이는 기초학력 미달 또는 학습부진의 문제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참조하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일반 가정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모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습부진을 겪는 것은 아니나 언어, 문화, 사회적 관계, 경제적 조건 등의 측면에서 일반 학습부진 학생들과는 일정 부분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고 이 점이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특정 집단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학생 중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해당 학년 수준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들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 지원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 이들의 학습 특성 및 학습 환경(학습 영향 요인)을 조사

하였다. 기존의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생활과 학습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일차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5]. 그러나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다문화학생으로 일컬어지는 학생들 중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특성화된 조사 결과는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조사 연구는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을 겪지 않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습부진을 겪는 일반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설문 결과를 통해 다문화배경 변인과 학습부진 변인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이를 영어 외 주요 교과 학습 지원 콘텐츠 개발에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시사점은 향후 다문화가정의 학생들 중 기초학력미달에 해당되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처치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행연구 분석

국내 다문화가정의 증대와 더불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6-7].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부진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일반과 관련된 연구이다. 다른 하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과 학습과 관련된 연구이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일반과 관련하여 언어의 문제를 다룬 원진숙 등과 조영달 등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 연령에 맞는 학년에 배치 받지 못하거나 해당 학령기에 학습해야 할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는 상황을 주목하였다[8][9]. 특히 한국어 능력 결핍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 발달 및 인지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 문제는 학교 부적응과 그로 인한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같은 이유에서 송현정 등은 다문화가정 학

생 지도 시 한국어 능력 신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10].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성취를 고찰한 신진아 등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전반적으로 일반 학생들에 비해 낮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우수학력 비율이 낮아지고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하였다[4]. 다른 한편 조영달 등은 지역별 및 학교급별 학생들의 교과별 주관적 학업성취, 교과 흥미도, 교과 내용 이해도, 교과수업 집중도,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이는 학업성취 상의 문제는 다문화가정 변인이라기보다는 학교 교육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주장하였다[9].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과 학습과 관련하여 김영란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 6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 특성을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11]. 그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중 우수학력 집단을 제외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은 전체 학생에 비해 다소 낮은 문항 정답률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정우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 특성을 규명하였다[12]. 그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가 일반 학생에 비해 낮으며, 중도입국 학생은 평균 점수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과 기초미달의 비율 또한 매우 높았다.

마지막으로, 학습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개발 연구와 관련하여 나성원 등은 학습부진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사이버 학습 시스템을 설계하였다[13].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이 되도록 해당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박진원은 학령기 말터듬이아동과 학습부진아동을 대상으로 읽기과업과 쓰기과업을 제시한 후 이들의 수행 특성을 살펴보았다[14].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이 아동들에게 적절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사 검토 결과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문제는 한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그와

관련된 문화 이해, 소속감(정체성), 사회적 관계 등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는 일반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와도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들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구안하기 위해서는 학습부진과 관련된 보다 보편적인 문제점들을 함께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문조사 과정을 기술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설문 목적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을 포함한 중상위권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겪는 학습 상의 장애 요인을 찾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학습 환경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과 학습 환경 조성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설문 대상

설문 조사는 교육부 통계 자료를 근거로, 총 62,010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재학 중인 전국의 5,178개 초등학교 중에서 지역별로 계층표집 된 200개교 초등학교 4,8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15]. 설문 조사를 지원해 준 교사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학습부진을 겪는 학생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 한 후, 그와 별도로 동수의 다문화가정 중상위권 학생과 일반 학습부진학생 각각을 임의표집 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학교 및 학생 수는 200개 초등학교의 재학생 2,091명이며, 이 중 다문화 중상위학생은 601명,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은 550명, 일반 학습부진학생은 726명, 다문화 무응답학생(학습부진 여부 미표기)은 214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정 학생들 중에서 국내출생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은 850명이었고 중도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은 211명이었다.

표 1. 학생 설문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비율(%)			
	다문화중상위	다문화학습부진	일반학습부진	
그룹별(N=1877)	598(31.86%)	549(29.25%)	730(38.89%)	
성별(N=1877)	남	266(28.30%)	283(30.11%)	391(41.60%)
	여	321(35.87%)	257(28.72%)	317(35.42%)
도시 규모별(N=1877)	대도시	216(11.51%)	186(9.91%)	249(13.27%)
	중소도시	178(9.48%)	183(9.75%)	246(13.11%)
	읍면지역	204(10.87%)	180(9.59%)	235(12.52%)
학년별(N=1865)	1-2	70(3.75%)	68(3.65%)	62(3.32%)
	3-4	228(12.23%)	205(10.99%)	234(12.55%)
	5-6	298(15.98%)	275(14.75%)	425(22.79%)
다문화 가정 학생 출생별(N=1061)	국내출생	469(44.20%)	381(35.91%)	-
	국외출생	86(8.11%)	125(11.78%)	-
다문화 가정 학생 국외출생 국가별(N=211)	중국조선족	34(16.11%)	41(19.43%)	-
	중국한족	10(4.74%)	16(7.58%)	-
	일본	24(11.37%)	13(6.16%)	-
	필리핀	4(1.90%)	16(7.58%)	-
	베트남	3(1.42%)	5(2.37%)	-
	태국	0(0.00%)	1(0.47%)	-
	몽골	2(0.95%)	4(1.90%)	-
	러시아	2(0.95%)	9(4.27%)	-
	우즈베키스탄	0(0.00%)	0(0.00%)	-
	기타	7(3.32%)	20(9.48%)	-

3. 설문 내용

설문 조사의 내용은 크게 다문화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 특성’과 관련하여 하위 설문 영역을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지원’으로 구분하고, ‘학습 환경’과 관련하여 ‘한국어’, ‘소속감’, ‘가정 내 지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적 관계’로 구분한 후 각 영역별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각 하위 영역별 설문 조사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설문 조사 내용

설문 영역	설문 내용	
학습	학습 동기	·학급에서의 대인 관계 ·자기효능감 ·성취 동기 ·학업 스트레스 대처 ·목표 설정
	학습 전략	·과제 해결 방법 ·과제 해결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 ·과제 해결을 위한 계획
	학습 지원	·교사의 학습 지원 ·교우의 학습 지원 ·부모의 학습 지원
학습 환경	한국어	·한국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 ·한국어에 대한 태도
	소속감	·한국에서의 거주 ·한국 문화에 대한 익숙함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 대한 인식
	가정 내 지원	·경제적 조건 ·정서적 지원 ·학습 환경 지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언어에 대한 익숙함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익숙함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라 사람에 대한 익숙함
	사회적 관계	·학교에서 담임교사와의 관계 ·학교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4. 설문 절차

각 설문 영역 및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배경 정보를 포함한 총 49개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 조사 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다문화교육 전문가(대학 교수, 기관 연구자, 시도 교육청 실무자, 교사) 20명에게 의뢰하여 설문 영역 및 설문 내용 설정과 각 영역별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 평정을 실시하였다(회송: 19명).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진 타당도 평정 결과, 설문 영역 및 설문 내용 설정에 대한 평균 타당도는 4.70, 세부 설문 문항에 대한 평균 타당도는 4.74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도구로서의 타당도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로 판단되었다.

설문 실시를 위한 학교는 학교별 총 다문화가정 학생 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시도별 학생 수에 비례하여 55개 다문화교육 관련 학교(예비학교, 특별학급운영, 연구학교 등)를 포함한 후, 도시와 농촌을 동일 비율로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7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19일 동안 실시되었다. 개발된 설문지는 설문 안내와 함께 담당 교사에게 우편으로 전달되었으며, 한국어가 서툰 학생들은 해당 학교의 다문화 담당 교사,

담임교사, 이중언어 강사 등의 도움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설문 담당 교사가 회송하였으며, 수합된 설문은 자료 확인 및 코딩 작업을 거쳐 통계 분석에 활용되었다.

설문조사 자료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결과 등의 근거에 따른 교사의 판단에 입각하여 ‘다문화 중상위권’, ‘다문화 학습부진’, ‘일반 학습부진’ 학생 등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F 검정 및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생의 설문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 검증(t검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특성

1.1 학습 동기

F 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의 ‘문항 4’를 제외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와 ‘문항 3’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항 1, 5, 6’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높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동기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1. 나는 담임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 중상위	590	3.62	6.395 (2, 1847)	.002	①)②
	다문화 부진	537	3.46			
	일반 부진	723	3.52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2.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 중상위	589	3.68	8.217 (2, 1847)	.000	①)②, ③
	다문화 부진	538	3.52			
	일반 부진	723	3.54			
3. 내가 노력을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다문화 중상위	589	3.71	9.904 (2, 1846)	.000	①)②, ③
	다문화 부진	537	3.53			
	일반 부진	723	3.61			
4. 내 성적을 더 올리고 싶다.	다문화 중상위	587	3.77	1.251 (2, 1843)	.286	-
	다문화 부진	538	3.72			
	일반 부진	721	3.76			
5. 성적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	다문화 중상위	586	3.24	6.709 (2, 1837)	.001	①)②
	다문화 부진	536	3.03			
	일반 부진	718	3.12			
6. 목표로 했던 점수를 받아서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을 듣고 싶다.	다문화 중상위	584	3.62	4.977 (2, 1836)	.007	①)②
	다문화 부진	537	3.47			
	일반 부진	718	3.55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학습 동기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과 관련된 문항(‘내 성적을 더 올리고 싶다.’, ‘성적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 ‘목표로 했던 점수를 받아서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을 듣고 싶다.’)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하여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39, 2.822, 2.480, p<.0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4.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학습 동기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1. 나는 담임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이 좋다.	국내출생	844	3.58	.687	1.745
	중도입국	257	3.49	.766	
2. 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국내출생	844	3.62	.677	1.079
	중도입국	257	3.56	.774	
3. 내가 노력을 하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국내출생	843	3.65	.660	1.672
	중도입국	257	3.56	.763	
4. 내 성적을 더 올리고 싶다.	국내출생	842	3.76	.554	2.139*
	중도입국	257	3.65	.756	
5. 성적이 떨어지면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본다.	국내출생	839	3.18	.947	2.822*
	중도입국	257	2.98	1.055	
6. 목표로 했던 점수를 받아서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칭찬을 듣고 싶다.	국내출생	839	3.59	.761	2.480*
	중도입국	257	3.44	.887	

*p<.05, **p<.01, ***p<.001

1.2 학습 전략

F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에 속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과 ‘문항 5’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문항 2’와 ‘문항 3’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항 4’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난 점이 특이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습 전략 면에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이나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표 5.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전략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df)	p	사후검증	
1.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다문화중상위	589	2.81	.859	14.078 (2, 1846)	.000	①)②, ③
	다문화부진	536	2.55	1.000			
	일반부진	724	2.57	.986			
2. 나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은 선생님에게 묻는다.	다문화중상위	586	2.87	.960	4.073 (2, 1836)	.017	①)②
	다문화부진	536	2.71	1.065			
	일반부진	717	2.74	1.068			
3. 나는 수업 시간에 어려운 것은 친구에게 묻는다.	다문화중상위	585	3.03	.969	3.887 (2, 1841)	.021	①)②
	다문화부진	537	2.85	1.093			
	일반부진	722	2.93	1.080			
4. 나는 학습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 무엇을 공부할지를 정한다.	다문화중상위	589	2.83	.957	17.586 (2, 1841)	.000	①)③) ②
	다문화부진	534	2.46	1.086			
	일반부진	721	2.64	1.068			
5. 나는 공집중해서 한다.	다문화중상위	587	3.17	.806	37.124 (2, 1839)	.000	①)②, ③
	다문화부진	534	2.75	.985			
	일반부진	721	2.81	.938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학습 전략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 전략과 관련된 영역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사이에 모든 문항에 걸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p>.0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6.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학습 전략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1.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한다.	국내출생	843	2.70	.917	-.708
	중도입국	257	2.74	.966	
2. 나는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서 묻는다.	국내출생	842	2.78	1.027	-1.472
	중도입국	257	2.89	.992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3. 나는 수업 시간에 어려운 것은 친구에게 묻는다.	국내 출생	841	2.90	1.043	-1.370
	중도 입국	257	3.00	1.008	
4. 나는 학습 목적에 맞게 계획을 세워 무엇을 공부할지를 정한다.	국내 출생	841	2.70	1.019	1.298
	중도 입국	255	2.60	1.067	
5. 나는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한다.	국내 출생	841	2.98	.913	-.268
	중도 입국	256	3.00	.914	

*p<.05, **p<.01, ***p<.001

1.3 학습 지원

F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에 속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2’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3’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일반 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학습 지원 면에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교사나 친구의 학습 지원 측면에서 다문화중상위 집단과 일반학습부진 집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7.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지원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1. 담임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신다.	다문화 중상위	589	3.65	.635	4.913 (2, 1844)	.007	①,③) ②
	다문화 부진	537	3.52	.758			
	일반 부진	721	3.62	.675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2.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준다.	다문화 중상위	588	3.25	.858	3.421 (2, 1844)	.033	①)②
	다문화 부진	538	3.10	.969			
	일반 부진	721	3.18	.942			
3. 부모님이 숙제나 시험 준비를 도와주신다.	다문화 중상위	589	3.11	1.022	12.610 (2, 1843)	.000	①)③) ②
	다문화 부진	537	2.78	1.151			
	일반 부진	720	2.95	1.127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학습 지원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 지원과 관련된 영역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p>.05).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8.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학습 지원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1. 담임선생님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주신다.	국내 출생	843	3.59	.681	.675
	중도 입국	257	3.55	.764	
2.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을 잘 가르쳐 준다.	국내 출생	843	3.20	.904	1.484
	중도 입국	257	3.11	.944	
3. 부모님이 숙제나 시험 준비를 도와주신다.	국내 출생	843	2.97	1.070	.453
	중도 입국	256	2.94	1.143	

*p<.05, **p<.01, ***p<.001

2.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환경

2.1 한국어

F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에 속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2, 3, 5’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및 일반 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1’과 ‘문항 4’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일반 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한국어 능력 측면에서 학습부진에 해당되지 않는 집단의 학생들이 학습부진에 해당되는 집단에 비해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9.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한국어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1. 나는 한국어로 된 글을 편하게 읽는다.	다문화중상위	598	3.87	38.181 (2, 1866)	.000	①)③) ②
	다문화부진	546	3.57			
	일반부진	725	3.69			
2. 나는 한국어로 글을 편하게 쓴다.	다문화중상위	597	3.87	59.514 (2, 1862)	.000	①)②, ③
	다문화부진	546	3.46			
	일반부진	722	3.54			
3.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다문화중상위	596	3.91	23.820 (2, 1859)	.000	①)②, ③
	다문화부진	545	3.70			
	일반부진	721	3.77			
4. 사람들이 한국어로 하는 말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문화중상위	597	3.84	23.007 (2, 1857)	.000	①)③) ②
	다문화부진	543	3.62			
	일반부진	720	3.73			
5.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중상위	597	3.86	6.978 (2, 1854)	.001	①)②, ③
	다문화부진	541	3.74			
	일반부진	719	3.78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한국어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영역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모두 보통 이상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가진 것으로 응답했으나, 국내출생 집단과 중도입국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는 모든 문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중도입국 다문화

가정 학생에 비해 한국어 사용(읽기, 쓰기, 말하기, 이해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0.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한국어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
1. 나는 한국어로 된 글을 편하게 읽는다.	국내출생	860	3.79	5.781***
	중도입국	261	3.49	
2. 나는 한국어로 글을 편하게 쓴다.	국내출생	858	3.77	6.574***
	중도입국	260	3.40	
3.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국내출생	856	3.88	6.907***
	중도입국	259	3.54	
4. 사람들이 한국어로 하는 말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국내출생	856	3.83	8.379***
	중도입국	259	3.41	
5. 나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국내출생	854	3.90	7.536***
	중도입국	258	3.48	

* $p < .05$, ** $p < .01$, *** $p < .001$

2.2 소속감

F 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에 속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사는 게 좋은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의 여부와 한국 사람이길 바라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중상위 집단에 비해,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인사법이 익숙한지의 여부와 한국 음식이 익숙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감 영역의 검사 결과를 다른 영역의 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보인다. 향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지의 여부와 한국 사람이길 바라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 두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학습부진 여부와 관계없이 다문화중상위 집단과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균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1.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소속감 특징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1.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게 좋다.	다문화중상위	598	3.79	.504	15,465 (2,1861)	.000	①,③) ②
	다문화부진	544	3.67	.670			
	일반부진	722	3.85	.498			
2. 나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다문화중상위	598	3.57	.695	28,911 (2,1859)	.000	③)①) ②
	다문화부진	545	3.47	.813			
	일반부진	719	3.76	.595			
3. 한국에서의 인사법이 익숙하다.	다문화중상위	598	3.87	.432	6,220 (2,1863)	.002	①,③) ②
	다문화부진	547	3.78	.578			
	일반부진	721	3.87	.448			
4. 한국 음식이 익숙하다.	다문화중상위	597	3.81	.494	11,461 (2,1852)	.000	①,③) ②
	다문화부진	540	3.70	.661			
	일반부진	718	3.84	.496			
5. 나는 한국 사람이길 바란다.	다문화중상위	595	3.64	.678	30,938 (2,1852)	.000	③)①) ②
	다문화부진	543	3.50	.869			
	일반부진	717	3.81	.565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소속감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소속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에 비해 한국 거주와 인사법 등에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평균에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표 12.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소속감 특징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1.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게 좋다.	국내출생	860	3.80	.524	5.402***
	중도입국	258	3.53	.744	
2. 나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	국내출생	860	3.61	.683	6.497***
	중도입국	258	3.22	.887	
3. 한국에서의 인사법이 익숙하다.	국내출생	860	3.90	.396	5.970***
	중도입국	259	3.63	.717	
4. 한국 음식이 익숙하다.	국내출생	856	3.84	.477	5.879***
	중도입국	257	3.54	.765	
5. 나는 한국 사람이길 바란다.	국내출생	857	3.69	.668	7.880***
	중도입국	259	3.19	.964	

* $p<.05$, ** $p<.01$, *** $p<.001$

2.3 가정 내 지원

F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에 속한 모든 문항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1’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2’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항 3’과 ‘문항 4’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5’에 대해서는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일반학습부진 집단 및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 내 지원 측면에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평균을 드러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표 13.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가정 내 지원 특징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1. 우리 집이 편안하고 좋다.	다문화 중상위	592	3.86	9.855 (2, 1847)	.000	①>③ ②	
	다문화 부진	538	3.72				.662
	일반 부진	720	3.81				.537
2. 나는 학원에 다닌다.	다문화 중상위	591	3.03	17.986 (2, 1843)	.000	①>③ ②	
	다문화 부진	537	2.53				1.450
	일반 부진	718	2.87				1.411
3. 부모님은 내가 학습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 사주신다.	다문화 중상위	591	3.48	4.721 (2, 1843)	.009	①>②	
	다문화 부진	536	3.33				.894
	일반 부진	719	3.41				.836
4.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다문화 중상위	589	3.25	3.532 (2, 1840)	.029	①>②	
	다문화 부진	538	3.11				1.003
	일반 부진	716	3.23				.987
5. 우리 집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문화 중상위	589	3.64	13.600 (2, 1837)	.000	①>②, ③	
	다문화 부진	534	3.36				.987
	일반 부진	717	3.48				.901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가정 내 지원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부모님은 내가 학습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 사주신다.’와 ‘우리집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집이 편안하고 좋다.’, ‘나는 학원에 다닌다.’,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평균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4.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가정 내 지원 특징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
1. 우리 집이 편안하고 좋다.	국내출생	845	3.86	.450
	중도입국	257	3.65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
2. 나는 학원에 다닌다.	국내출생	845	2.90	1.399
	중도입국	253	2.47	
3. 부모님은 내가 학습에 필요한 걸 이야기하면 사주신다.	국내출생	842	3.44	.843
	중도입국	254	3.34	
4. 주말에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국내출생	843	3.21	.970
	중도입국	254	3.05	
5. 우리 집에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국내출생	839	3.52	.879
	중도입국	254	3.42	

*p<.05, **p<.01, ***p<.001

2.4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F 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에 속한 문항 중 ‘문항 1, 2, 3, 4, 7’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중상위 집단과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들을 살펴보면 아빠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지의 여부, 엄마 나라의 말을 할 줄 아는지의 여부, 아빠 나라의 명절을 아는지의 여부, 엄마 나라의 명절을 아는지의 여부, 아빠 나라의 사 람들에 대해 아는지의 여부 등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다 문화가정 학습부진에 해당되는 않는 학생들이 아빠 나라와 엄마 나라의 말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5.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구 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아니다	아니다	χ ²	p	
1. 아빠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다문화 중상위	511 (91.1%)	28 (5.0%)	7 (1.2%)	15 (2.7%)	10.433	.015
	다문화 부진	436 (84.8%)	40 (7.8%)	14 (2.7%)	24 (4.7%)		
2. 엄마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다문화 중상위	213 (38.0%)	168 (29.9%)	88 (15.7%)	92 (16.4%)	27.944	.000
	다문화 부진	239 (46.3%)	92 (17.8%)	67 (13.0%)	118 (22.9%)		
3. 아빠 나라의 명절을 안다.	다문화 중상위	462 (82.5%)	54 (9.6%)	18 (3.2%)	26 (4.6%)	27.574	.000
	다문화 부진	359 (70.0%)	65 (12.7%)	42 (8.2%)	47 (9.2%)		

구 분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아니다	아니다	χ^2	p
4. 엄마 나라의 명절을 안다.	다문화 중상위	197 35.2%	155 27.7%	78 13.9%	130 23.2%	10.608	.014
	다문화 부진	203 39.4%	102 19.8%	67 13.0%	143 27.8%		
5. 아빠 나라의 음식을 안다.	다문화 중상위	503 90.1%	37 6.6%	9 1.6%	9 1.6%	6.754	.080
	다문화 부진	435 85.1%	47 9.2%	13 2.5%	16 3.1%		
6. 엄마 나라의 음식을 안다.	다문화 중상위	335 59.7%	134 23.9%	51 9.1%	41 7.3%	0.652	.885
	다문화 부진	309 59.9%	122 23.6%	42 8.1%	43 8.3%		
7. 아빠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다문화 중상위	457 82.3%	65 11.7%	19 3.4%	14 2.5%	15.495	.001
	다문화 부진	377 73.5%	77 15.0%	27 5.3%	32 6.2%		
8. 엄마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다문화 중상위	284 50.6%	153 27.3%	66 11.8%	58 10.3%	6.048	.109
	다문화 부진	244 47.5%	126 24.5%	68 13.2%	76 14.8%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화에 대한 이해 관련 영역 중 ‘아버지’의 문화와 관련된 문항인 ‘아빠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아빠 나라의 명절을 안다.’, ‘아빠 나라의 음식을 안다.’, ‘아빠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평균이 높게 나왔으며, 집단 간 평균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 문화와 관련된 문항 중에서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이 엄마 나라의 언어, 명절, 음식 등에 대해 더 잘 아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집단 간 평균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1. 아빠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국내출생	845	3.83	.612	2.949**
	중도입국	254	3.69	.733	
2. 엄마 나라의 말을 할 줄 안다.	국내출생	845	2.69	1.160	-10.248***
	중도입국	256	3.41	.937	
3. 아빠 나라의 명절을 안다.	국내출생	843	3.67	.782	5.006***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4. 엄마 나라의 명절을 안다.	중도입국	253	3.33	1.011	-7.863***
	국내출생	843	2.58	1.233	
5. 아빠 나라의 음식을 안다.	중도입국	254	3.19	1.047	4.696***
	국내출생	839	3.87	.489	
6. 엄마 나라의 음식을 안다.	중도입국	254	3.64	.740	-4.017***
	국내출생	843	3.30	.943	
7. 아빠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중도입국	256	3.55	.834	5.679***
	국내출생	840	3.76	.647	
8. 엄마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 안다.	중도입국	253	3.40	.956	-4.943***
	국내출생	842	3.05	1.069	
	중도입국	255	3.38	.909	

*p<.05, **p<.01, ***p<.001

2.5 사회적 관계

F검정 및 사후 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해당 영역에 속한 문항 중 ‘문항 2, 3, 4, 8.’에 대해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들어 주고 내가 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것에 대해서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일반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중상위 집단에 비해 평균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표 17.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사회적 관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1.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다문화중상위	585	3.31	.790	2.427 (2, 1831)	.089	-
	다문화부진	534	3.20	.876			
	일반부진	715	3.25	.834			

구 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F (df)	p	사후 검증	
2. 나는 담임선생님을 좋아한다.	다문화 중상위	589	3.48	.790	9.070 (2, 1840)	.000	①③②
	다문화 부진	534	3.26	.953			
	일반 부진	720	3.42	.826			
3. 우리 반 친구들과 내 말을 잘 들어 준다.	다문화 중상위	592	3.35	.851	17.019 (2, 1846)	.000	①②③
	다문화 부진	539	3.05	.982			
	일반 부진	718	3.11	.928			
4.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 준다.	다문화 중상위	588	3.48	.732	10.556 (2, 1841)	.000	①②③
	다문화 부진	538	3.28	.881			
	일반 부진	718	3.30	.851			
5.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다문화 중상위	591	2.65	1.150	1.940 (2, 1842)	.144	-
	다문화 부진	536	2.58	1.180			
	일반 부진	718	2.71	1.146			
6. 친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다문화 중상위	589	2.72	1.098	2.483 (2, 1839)	.084	-
	다문화 부진	537	2.72	1.167			
	일반 부진	716	2.84	1.117			
7.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다문화 중상위	590	2.02	1.147	2.902 (2, 1837)	.055	-
	다문화 부진	534	2.12	1.186			
	일반 부진	716	2.18	1.213			
8. 학교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	다문화 중상위	591	2.40	1.207	3.482 (2, 1847)	.031	③①
	다문화 부진	538	2.51	1.248			
	일반 부진	721	2.58	1.239			

①: 다문화중상위, ②: 다문화부진, ③: 일반부진

사회적 관계 영역을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과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반 친구들과는 내 말을 잘 들어 준다.’,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 준다.’, ‘친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등의 문항에서 국내출생 다문화가정 학생의 평균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p < .05$).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시된 표와

같다.

표 18. 국내출생 및 중도입국 학생의 사회적 관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t	
1.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국내출생	839	3.25	.805	-.791
	중도입국	254	3.30	.845	
2. 나는 담임선생님을 좋아한다.	국내출생	842	3.38	.887	-1.515
	중도입국	254	3.46	.803	
3. 우리 반 친구들과는 내 말을 잘 들어 준다.	국내출생	845	3.26	.894	2.993**
	중도입국	256	3.06	.960	
4. 나는 우리 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 준다.	국내출생	841	3.43	.769	2.341*
	중도입국	256	3.29	.866	
5.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국내출생	845	2.63	1.152	.822
	중도입국	254	2.56	1.184	
6. 친구 집에서 함께 놀 때가 많다.	국내출생	841	2.77	1.118	2.230*
	중도입국	255	2.58	1.164	
7.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	국내출생	842	3.01	1.147	3.445***
	중도입국	253	2.73	1.148	
8. 학교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다.	국내출생	845	2.61	1.217	.914
	중도입국	255	2.53	1.232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영어 외 주요 교과 교육 콘텐츠 개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들의 학습 특성과 학습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특성은 ‘학습 동기’, ‘학습 전략’, ‘학습 지원’ 등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각 영역의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해 다문화중상위 집단,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일반학습부진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학습 동기 영역에서 ‘내 성적을 더 올리고 싶다.’에 대한 집단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의 학습 환경은 ‘한국어’, ‘소속감’, ‘가정 내 지원’,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 ‘사회적 관계’ 등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해 다문화중상위 집단,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일반학습부진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한국어 능력 측면에서 학습부진에 해당되지 않는 집단이 학습부진에 해당되는 집단에 비해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둘째, 소속감 영역의 분석 결과는 다른 영역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 학습부진 집단이 다문화 중상위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부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일반 학습부진학생들에 비해 한국에 대한 소속감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모 문화에 대한 이해 영역의 분석 결과 다문화중상위 집단과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한 문항들은 주로 아빠 나라와 엄마 나라의 언어(말)와 문화(명절)에 관련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넷째, 학급 구성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 다문화중상위 집단이 다문화학습부진 집단 및 일반학습부진 집단에 비해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반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들어 주고 내가 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 주는 일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 학습부진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학급 구성원들과의 소통 과정에 상호 수용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기초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시 ‘학습

내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학습 일반 영역에서는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 관련 내용을, 학습 환경 영역에서는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문화’ 관련 교육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학습부진학생들로 하여금 교수학습 언어로 사용되는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어 사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습부진학생들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급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 및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 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소속감 고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교사와 학생으로 대표되는 주변인으로부터 학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정 학습부진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인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2008.
- [2]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2012; 교육부, *다문화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14.
- [3] 오상철, 이화진, 장경숙, 구영산, *다문화 학습부진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보고 PRI 2013-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3.
- [4] 신진아, 김경희, 박상욱, 김영란, 이정우, 서민철, 조운동, 김현경, 이영주, 최숙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기반한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의 교과별 성취 특성 분석*, 연구보고 PRE 2012-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 [5] 오은순, 홍선주, 김민정, 모경환, 김선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 연구(II), 연구보고 RRI 2008-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 오은순, 박진용, 김정숙, 백지숙,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방안 연구(III):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RI 2009-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9.

- [6] 오성숙, “다문화가정 어머니 개인변인과 가정환경자극이 유아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pp.522-531, 2013.
- [7] 양심영, 박수경, 김미숙, “다문화가정 아동의 이중문화특성 및 사회적 자원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6호, pp.270-282, 2013.
- [8] 원진숙, 이재분, 서혁, 권순희,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 연구보고 CR 2011-55-7, 한국교육개발원, 2012.
- [9] 조영달, 구정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학업성취도 분석 및 교육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1.
- [10] 송현정, 양정실, *다문화 사회의 국어교육 정책 방향 연구*, 연구보고 RRI 201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 [11] 김영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초6 다문화 가정 학생의 국어과 학업성취도”, 국어교육학연구, 제48집, pp.125-151, 2013.
- [12] 이정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본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 특성”, 시민교육연구, 제45권, 제2호, pp.257-291, 2013.
- [13] 나성원, 심상민, 이순애, 조용환, “웹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사이버 학습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권, 제1호, pp.1-6, 2002.
- [14] 박진원, “학령기 말더듬이아동과 학습부진아동의 읽기유창성 및 쓰기유창성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8호, pp.476-484, 2014.
- [15]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교육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2012.

저 자 소 개

구 영 산(Youngsan Goo)

정회원



▪ 2011년 10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관심분야> : 국어 교수학습 및 정책, 교육 소외 청소년, 언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방법론

오 상 철(Sangchul Oh)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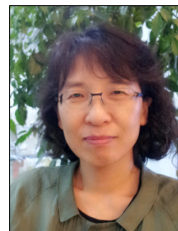


▪ 2005년 7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심분야> : 교육공학, 교수학습 외

이 화 진(Hwajin Yi)

정회원



▪ 1998년 7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심분야> : 교수학습, 학습부진 외

장 경 속(Kyungsuk Chang)

정회원



▪ 2002년 7월 ~ 현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심분야> : 교사연수, 교육과정, 온라인콘텐츠개발